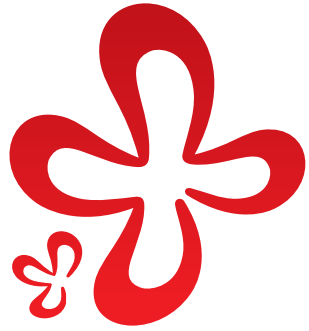


러지 타임

리조트



여행 정보

비자 요건
모든 국적의 방문객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이스라엘, 유럽 연합 국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등의 여권을 소지한 분,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국적자의 경우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지아 외무부 웹사이트 www.mfa.gov.ge 를 참조해 주십시오.

입국 및 출국 방법
항공편: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트빌리시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항편은 암스테르담, 뮌헨, 리가,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프라하, 파리, 바르샤바, 이스탄불, 도하, 두바이, 델라비르, 아테네, 바쿠,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키예프, 민스크, 알마타, 아스타나, 악타우, 테헤란, 우루무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트빌리시 국제공항과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해주는 허브 도시입니다.

육로편: 바쿠, 이스탄불, 앙카라, 트라브존, 예레반, 아테네에 트빌리시행 버스가 매일 있습니다.

열차편: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철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쿠에서는 매일 열차편이 있습니다. 열차 시각표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www.railway.ge 를 참조하십시오.

선박편: 우크라이나의 일리체프스키(Ilychevsk)항과 오데사(Odessa)항에서 매주 조지아행 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트빌리시와 바투미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국제 4성급 호텔부터 홈스테이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곽 지역의 숙박 시설은 주로 3성급 호텔로 침대와 조식이 제공되며, 홈스테이도 가능합니다.

요리
트빌리시에는 조지아 전통 요리와 국제적인 요리를 모두 제공하는 훌륭한 레스토랑이 많으며, 조지아의 그 밖의 지역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로 전통 요리가 제공됩니다.

기차
조지아는 작은 국토에 비해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후를 보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은 조지아의 기후를 온화하게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북쪽의 한랭기단이 조지아로 넘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코카서스 산맥은 남쪽의 고온건조한 기단이 조지아로 오는 것도 부분적으로 막아줍니다.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19°C-22°C

이며,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1.5°C-3°C입니다.

통화
조지아의 공식 통화는 조지아 라리이며 보통 GEL로 표시됩니다. 라리는 100테트로 나누어집니다. 1GEL은 0.46유로 또는 0.60 미달러(2012년 1월 기준)입니다. 주요 호텔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요 도시 밖에서는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큰 마을과 도시에서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압 220 Volts, 50 Hz. 조지아 전역에서 EU 표준 플러그 사용.

통신
국가 번호는 +995입니다. 트빌리시의 지역 번호는 322입니다. 조지아 이동통신사업자(Geocell, Magticom, Beeline)는 조지아 국토 거의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Wi-Fi 존도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georgia.travel 을 참조해 주십시오.

조지아 국립관광국
4 Sanapiro St. 0105, Tbilisi, Georgia
전화: (+995 32) 2 43 69 99
팩스: (+995 32) 2 43 60 87
웹사이트: www.gnta.ge
이메일: info@gnta.ge



트빌리시
트빌리시는 조지아의 수도로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빌리시는 목조 주택, 많은 교회들, 그리고 카페와 유명한 온천들이 있는 여유롭고 손님에게 친절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특성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를 횡단했던 최초의 상인들과 낙타의 행렬이 트빌리시를 긴 여정의 휴식처로 삼았던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트빌리시는 예술가, 철학자, 그리고 알렉산드르 뒤마, 푸쉬킨, 레르몽토프, 차이코프스키, 조지 구르지예프, 크누트 함순, 람세이 맥도날드, 피프스리 맥클린 등의 작가에게 영감을 준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을 거닐면 산하리

를 따라 트빌리시를 내려다보며 지켜주고 있는 나리칼라 숲까지 이어져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목조 주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 교회의 후추통 모양의 특이한 지붕은 주변의 러시아 전통 양식, 아르부모 양식, 구 소련 시대의 건물, 현대적 구조의 건축물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트빌리시 주민들의 다양한 민족 구성을 반영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에는 아직도 유대인 마을,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 마을과 아르메니아의 동방정교회와 지난 수세기 동안 그려왔던 것처럼 모두 평화롭게 나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구다우리
코카서스 산맥의 한 가운데 위치하며 유럽에서 가장 극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봉우리에 둘러싸여져 있는 구다우리는 인기 있는 스키 리조트이자 세계적 내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트빌리시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단시간 내에 도착하며,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더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다우리에는 일년 내내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12월부터 4월 중순까지의 스키 시즌 동안 구다우리에서는 수준별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장거리와 단거리 코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키 선수라면 유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산악 스키에 도전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의 크로스컨트리 코스와 헬리스킹도 즐길 수 있습니다.

메스티아
최근에 새로 스키 리조트로 개발된 스바네티의 작은 마을입니다. 석조 망루, 아름다운 풍경과 우쉬바(Ushba)산(4,690m)과 테트누디(Tetnuldi)산(4,858m)이 유명



하며 여름철의 모험과 문화 체험 여행지로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바투미
흑해에 자리한 바투미는 흑해의 여러 행락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이곳에서는 지역 및 국제적인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를라스, 크리스 보티, 스팅과 엔리케 이글레시아스가 공연을 했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 독특한 건축 양식, 새로 오픈한 고급 호텔들이 있는 바투미는 비즈니스와 레저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므츠헤타
조지아의 전 수도인 므츠헤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에는 고대 조바리 사원이 우뚝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라크비강과 므츠바리강이 합류하는 곳을 내려다보는 이 사원은 수 마일 거리에서도 보이며, 모든 조지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장엄한 분위기의 스베티츠호벨리 성당은 조지아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상징하기 위해 서기 337년에 조르아스카고 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당은 조지아 최대의 고대 건축물로 우뚝 솟은 내벽은 환상적이고 독특한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건축물은 수세기 동안 조지아 왕들의 대관식과 장례식에 이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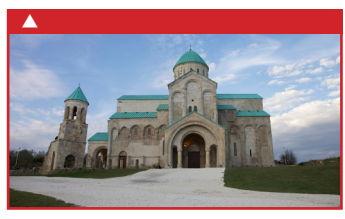


쿠타이시
쿠타이시는 트빌리시에 이어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조지아 서부에 위치한 쿠타이시에는 중세 도시의 특징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쿠타이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바그라티 성당과 겔라티 사원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모차메타(Motsameta) 사원이 푸르른 녹색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그라티 성당 - 국왕 바그라트 3세의 통치기에 세워진 크로수들 양식의 영면교회(Dormition) 성당. 웅장한 규모와 정면 배치 그리고 양각 벽조각으로 유명한 이 성당은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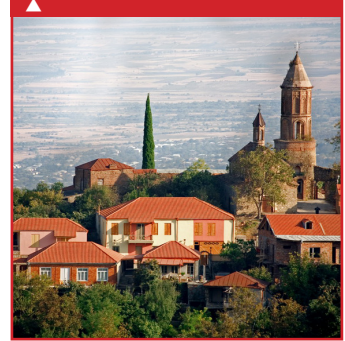
겔라티 사원 - 국왕 다비드 하그마세네 베리(조지아 건국의 아버지)가 1106년



에 세운 사원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조지아의 중세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서 천정을 이어주는 내벽을 덮고 있는 밝은 채색의 프레스코 벽화는 사원 창건 시에 그려진 것입니다. 겔라티 사원 내에는 코카서스 전역은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도 명성이 높았던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그나기
언덕 위에 자리한 큰 마을인 시그나기는 18세기 후반에 국왕 에르크 2세에 의해



세워진 길게 장관을 이루는 방어용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벽에 세워진 23개의 망루의 명칭은 각각 인근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알라자니 계곡과 코카서스 산맥의 아름다운 장관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카즈베기
우뚝 솟은 만년설의 카즈베기산(5,033m) 바로 아래 언덕에 자리한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료시킵니다. 6백년 전에 세워진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눈보라와 비와 침략으로 벽들은 남루해져 있지만,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조지아 사람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보르조미
보르조미의 천연광천수는 매우 맑고 몸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맛도 좋고 많은 종류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좋은 것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샘솟는 수많은 광천수 샘 뿐만 아니라, 잘나 있는 오솔길과 밤을 보내는 오두막, 그리고 진정한 아생림을 만끽할 수 있는 광활한 보르조미 국립공원도 가깝습니다.



사탈리
외진 마을인 사탈리에는 눈에 띄는 독특한 요새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능선 너머 북쪽 사면에 위치한 이 마을은 60여개의 망루가 밀집되어 하나의 거대한 방어용 건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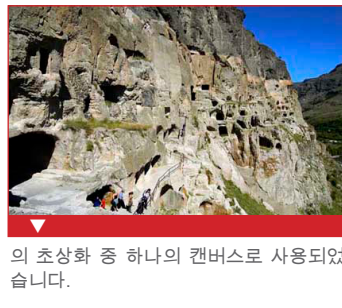


리한 조지아의 숨겨진 비밀과도 같은 마을입니다.

드마니시
드마니시는 180만년 전 원시 인류의 유골이 발굴된 고고학적 발견으로 유명하며, 이는 아프리카와 최초의 유럽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굴 도시
바르드지아 - 물이 흐르는 계곡 위로 가파른 절벽의 암석을 파서 만든 사원으로 전체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타마르 여왕의 통치기(1184~1213)에 만들어진 왕실용 궁성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중심이 되는 본원은 암석을 파서 만들어졌으며 벽은 타마르 여왕의 생전에 그려진 단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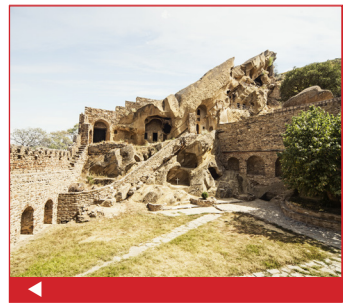
의 초상화 중 하나의 캔버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우플리스트시예 - 우플리스트시예(UP-LISTSIKHE)의 자연 동굴들이 거대하게 밀집된 곳으로 기독교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며, 12세기까지 역사적인 실크로드의 중요한 무역 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맨 꼭대기에 작은 교회가 들어서 있어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비드 가레지- 6세기에 만들어진 이 웅장한 동굴 사원은 트빌리시 정남쪽의 건조 지대에 위치합니다. 역사와 함께 완전히 쇠락했지만 한 때는 만 명이 넘는 수도사가 거주했으며, 오늘날에는 다시 사원의 기능을 되찾고 있습니다. 높은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동굴에서 바라다보이는 전망은 환상적이며, 벽에는 신앙과 관련된 인상적인 프레스코 벽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립공원
조지아 국토의 약 40%는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연 보호를 위해 40곳



이상의 보호 구역이 특별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르조마-하라가울리(Kharagauli)는 유럽 최대의 국립공원이며 코카서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PAN 공원에 포함된 공원입니다.

동굴
조지아 서부 지역에는 길고 깊은 카르스트 동굴들이 많으며, 그 중에는 동굴 속에서 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



하의 강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타프리아(Satapia)는 쿠타이시에서 북서쪽으로 6km 거리에 있는 카르스트 동굴로 동일한 이름의 자연 보호 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1925년에 발견된 길이 890m, 높이 10m, 너비 12m의 이 동굴은 아름다운鍾乳석과 석순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명한 공룡 발자국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초가르트보
의 카르스트 동굴은 조지아와 고대 그리스의 많은 신화와 이야기에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자연 현상으로 형성된 동굴입니다. 주요 포인트인 1km 길이의 통로에서는 홀, 화랑, 지하를 흐르는 강, 석화류, 다양한 모양의鍾乳석과 석순, 그리고 그 밖의 아름다운 자연 현상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